

詩와 빵을 함께 구워내는 詩人

구광본 시집 「강」

구광본이란 이름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다. 그러나 그의 시를 읽고 나면 낯설음은 일순간 사라지게 된다. 이 시인은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시를 써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주제로부터 절대 이탈시키지 않는 의식이 구광본 시의 주춧돌이 된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므로 한번 구워낸/빵과 어제의 시에 만족하지 못해요/내 꿈은 시와 빵을 합치는 것/ 빵 굽고 남는 시간에 시 쓰는 게 아니라/빵과 함께 시를 구워내는 게 꿈이에요...

시 「빵 굽는 사람」의 한 부분이다. 이 시인이 빵과 시를 함께 구워내려함은, 그가 시를 쓰면서 추상적이거나 난해한 시를 배제하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직접적인 시를 형상화하려는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시를 훑어볼 때, 「식구」 「꽃밭에서」 「아침이 가까왔다」 등의 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며 갈등하는 모습인데, 이런 갈등을 잔뿌리의 연약함 또는 흔들리는 물품의 불안정함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더 많은 땀」 「밭줄」 「귀가」 「일하는 사람」에서는 하루하루 밭줄 때문에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의 고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노동의 시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움매고 있는 이 밭줄이 바로/내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립니다'라고 극복하는 의지도 잊지 않는다.

「서울, 나는 그곳에서 죽을 수 없었다」라는 긴 제목의 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

하게 한다.

새들이 깃을 치지 않고, 바다로 간 물고기들은 죽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 도시 서울. 즐겁지 않은 노동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외친다. 이곳에선 죽지 말자고. 잠들지 못한 혼들이 배회하는 묘지의 도시에서 나는 날 아오르고 싶다고.

「강」은 이 시집의 결론에 해당하는 시이다. 강이란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도를 득한 수도승의 자세로 말한다. 앞의 여러 시에서 보여준 잔뿌리, 물품의 허리, 뒤적이는 갈등, 노동의 고단함 등을 해결해주고 있다.

결코 많지 않은 분량의 이 시집 「강」(민음사, 87)을 읽으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작품경력이 많지 않은 한 신인작가가 87년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조경민

서울 노원구 창2동 609-149

처절했던 현대사의 단면 증언

李泰지음 「南部軍」

흔히 한국동란의 비극성은 동족상잔,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무자비한 전쟁 속에서 함몰해 간 치열했던 삶의 도전과 좌절, 승리와 패배에도 비극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의 굴절이 응어리졌던 집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면, 나는 소위 '빨치산'으로 알려진 이들을 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남포당원으로서, 혹은 퇴로를 차단당한 북한 정구군으로서, 남한의 심산유곡을 누비며 저항한 이들이 빨치산이라 통칭된다. 이들은 열악한 화력과 조직, 보급문제 등의 조건 속에서 끝내는 괴멸하였지만, 이와 함께 철저한 고립과 생존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난 진실과 허구, 사랑과 증오도 어스산, 깊은 골짜기의 메아리와 함께 묻혀버렸다.

저자 李泰씨(본명은 李愚兌)는 조선중앙통신 기자로서 빨치산이 된 인물이다. 그 자신이 빨치산의 일원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빨치산을 주제로 한 소설류와는 궤를 달리하는 리얼리티와 현장성을 이 수기에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전문 소설가들을 '부끄럽게'할 정도의 유려한 필치로 빨치산의 생활을 재구성한다. 이 점에서 「남부군」은 수기가 갖는 특유의 딱딱함을 벗어날 수 있었고, 박진감과 영상이 아우러진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다.

또한 저자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기억에 의지하지만, 자신의 기억과 국내의 빨치산관계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수정과 보완의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

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남부군」은 주관적 수기의 편협성을 벗어나 어느 정도는 객관적 자료의 성격을 얻고 있다.

물론 저자가 「남부군」의 최고지도부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전략과 전술, 그리고 북한 지도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 저자의 의도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어간 너무도 많은 젊은 넋들"의 분노를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있다면, 이 수기는 분명 성공작이다. 왜냐하면 잔혹, 배신, 갈등, 그리고 "人肉이 난무하는" 광란의 모습으로 도색되었던 빨치산의 이야기가 「남부군」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하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남부군」의 출판과 함께 남한빨치산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의 '단초'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 왜곡과 분식으로 점철되었던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 둘씩 햇빛 속에서 밝혀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우리가 「남부군」을 한번 펼쳐들면 마지막 장까지 손에서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쁨 때문인 것이다.

金容右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444동 412호

技術圖書新刊案内

土木技師 시리즈 全 5 卷 /

- 應用力學 試驗研究 土木技術研究會 A 5 版 7,000원
- 測量 및 測地學 試驗研究 土木技術研究會 A 5 版 7,000원
- 水理 및 水文學 試驗研究 土木技術研究會 A 5 版 5,000원
- 鐵筋콘크리트 및 鋼構造 試驗研究 土木技術研究會 A 5 版 5,000원
- 土質 및 基礎 試驗研究 土木技術研究會 A 5 版 7,000원

- 主木材料 實技 및 內業問題 朴有緒 外 A 5 版 5,000원
- 土木材料 試驗一般 李泰潤 外 B 5 版 6,000원
- 油壓 一般 崔승길 外 A 5 版 5,000원
- 시퀀스 제어 일반 崔승길 外 B 5 版 6,500원
- (정밀) 용접 공학 박종우 著 A 5 版 6,500원

- 精密機械製圖 崔好善 著 B 5 版 6,000원
- 精密機械技能士學科 기계기능사시험연구회 B 5 版 6,000원
- 관금·제관기능사학과 하인섭 外 B 5 版 6,000원
- 자동차철거 테스터·북 안정기·김보영 著 B 5 版 9,000원
- 미용 일반 총 정리 이지현 著 B 5 版 6,000원



출도 판서 일진사

技術書籍의 産室!!

서울·용산구 효창동 5-104
☎ 714-2709
714-2710
715-3536